자동차

Car

중대형 승용차 내수시장 '씽씽'

올 2000~2500cc급 중형차 20% 증가

2500cc 이상도 시장점유율 25 % 차지

지난 2000년 이후 국내 자동차시장에 중·대형 승용차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대형화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사진은 신형 그랜저 출시 당시 전시 부스에 몰려든 인파.

국내 자동차 업계가 파업 종료에 따른 생산 정상화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달 각 회사별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들어 중·대형 자동차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00~2500cc급 중형차의 경우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20%가량 증가했으며, 2500cc 이상의 대형차도 국내 승용차 판매량의 25%를 차지할 만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국내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전체 내수판매대수는 11만5천61대로 지난 8월보다 29%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현대차가 5만6천93대를 팔아 지난해 9월보다 47.1% 늘어난 것을 비롯, 기아차 2만7천11대(50%), GM대우 1만3천500대(44.2%), 르노삼성 1만1천866대(11.6%) 등 두자릿수 판매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쌍용차는 6천506대로 0.3% 감소했다.

◇**중형승용차 내수 주도**=각사의 내수회복은 중형 승용차가 주도했다. 현대차 쏘나타는 지난해 9월보다 88.1%나 증가한 1만1천639대가 팔려 내수판매 1위의 자리를 확인했다.

르노삼성 SM5도 판매가 33.9% 증가했으며, GM대우의 토스카는 9월부터 시작한 중고차보상할부판매의 효과로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다. 지난 8월보다 104.3%나 증가한 3천197대가 판매돼 기아차의 로체(3천95대)를 따돌리고 3위 자리에 올라섰다.

내수시장에서 중형 승용차의 독주 양상은 사실 9월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올들어 9월까지 내수시장에서 판매된 국산 승용차 67만2천119대 가운데 2000~2500cc급 4개 승용차의 비중은 30.2%로, 지난해 같은 기간(21%)에 비해 급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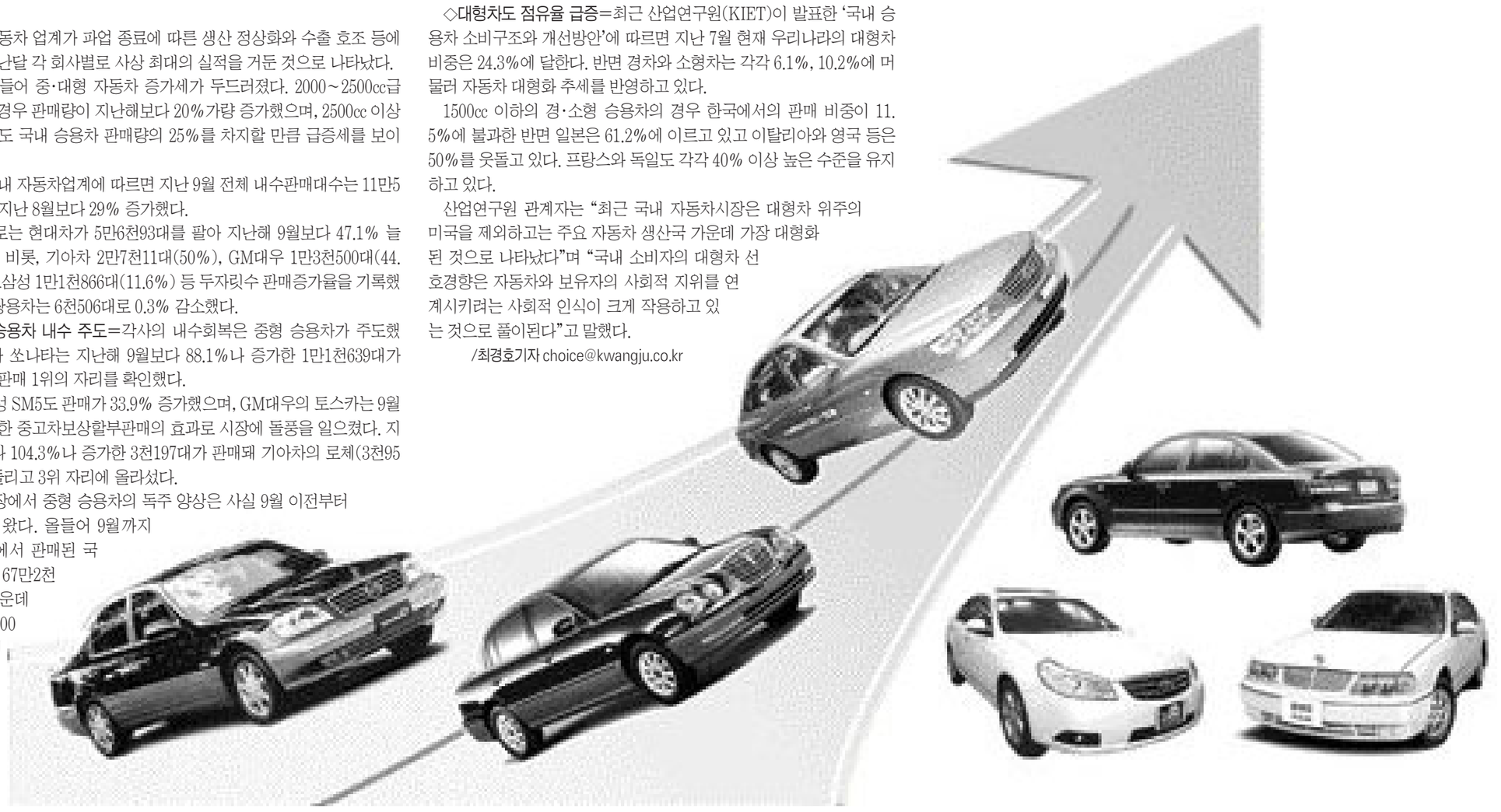
이같은 현상은 최근 경유값 상승과 자동차세 인상 등으로 인해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누려왔던 유지비의 장점이 반감되면서 소비자들이 중형 승용차로 눈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스포츠유틸리티차 판매는 13만6천91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 줄었다. 반면 국산 중형 승용차 판매는 18.6% 증가했다.

◇**대형차도 점유율 급증**=최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국내 승용차 소비구조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우리나라의 대형차 비중은 24.3%에 달한다. 반면 경차와 소형차는 각각 6.1%, 10.2%에 머물러 자동차 대형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1500cc 이하의 경·소형 승용차의 경우 한국에서의 판매 비중이 11.5%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61.2%에 이르고 있고 이탈리아와 영국 등은 50%를 웃돌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4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국내 자동차시장은 대형차 위주의 미국을 제외하고는 주요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가장 대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 소비자의 대형차 선호경향은 자동차와 보유자의 사회적 지위를 연계시키려는 사회적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기아 로체 '별다섯'

美 안정성 테스트 최고점

기아자동차 로체(수출명 옵티마·사진)가 미국에서 최고의 안전성을 입증받았다.

27일 기아차에 따르면 최근 로체가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2006년 자동차 충돌 테스트 결과 전좌석 모두 안전도 만점인 '별 다섯'을 받았다고 밝혔다.

NHTSA의 충돌테스트는 정면충돌에서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도, 측면충돌에서 앞·뒷좌석의 안전도를 측정하며, 로체는 4개 부문 모두에서 최고등급인 '별 다섯'을 받았다.

미국 연방정부 운수성 산하 정부기관인 NHTSA는 지난 1978년부터 매년 미국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한 충돌 안전성을 검증하는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결과는 미국은 물론 전세계 자동차 소비자들의 신차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

■ 겨울 앞둔 자동차 관리요령

히터·서리제거장치 점검 필수

안개등·연료 탱크도 살펴봐야

가을은 여름철 장마와 더위로 지친 자동차를 손봐야 할 계절이다.

특히 겨울에 대비해 히터와 안개등을 미리 점검하는 한편 전기계통을 중심으로 한 점화·시동 부위의 배선 상태와 침수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우선 가을에는 히터와 서리 제거장치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쾌적한 차량실내를 유지하기 위해선 히터와 서리 제거장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히터는 대부분 5월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10~20분 정도 작동시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아직 날씨가 춥지 않아 히터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겨울을 위해 미리 점검하는 게 좋다.

가을에는 안개가 자주 끼므로 안개등도 점검 대상이다. 평소에는 쓸만하던 라이트도 안개가 심한 지역에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안개등은 시야를 좋게 해 줄뿐만 아니라 상대편 차량에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전등의 외관 및 전구의 상태를 수시로 살펴봐야 한다.

연료탱크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도 필수적이다.

연료는 연료탱크의 연료펌프로부터 연료 파이프를 지나 연료 필터, 연료 압력 조정기, 인젝션 펌프 등의 순서로 이동한다. 오래된 연료 탱크 안에는 물이나 불순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필터나 파이프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낡은 타이어도 미리 교환해야 한다. 타이어의 마모 정도와 옆면의 상처와 흠을 점검해 본 뒤 울퉁불퉁하게 마모된 '트레드(타이어 표면)'가 있거나 한쪽 방향으로 편마모가 있다면 고쳐야 한다. 스노우 체인도 미리 꺼내 녹이나 불순물 등을 제거하고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한번쯤 습득해 놓는 게 좋다.

전기계통을 중심으로 점화·시동 부위의 배선 상태와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습기 제거를 위한 방법으로는 수시로 도어 및 트렁크를 열어 환기를 시켜주거나 볕을 쬐는 것이 좋고, 차내에 악취 제거를 겸한 제습제를 비치해 둬야 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